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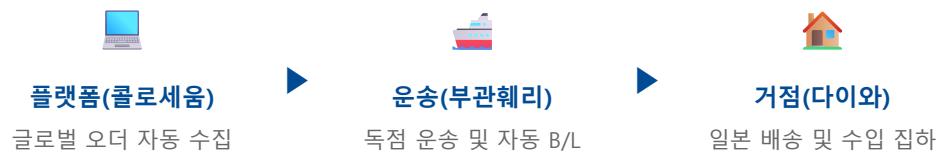
기업 투자 검토 보고서

부관훼리 전략적 투자(SI) - 최종 승인안

01. 글로벌 플랫폼 및 파트너 인프라

투자 대상	콜로세움 (Colosseum) AI 기반 이커머스 통합 물류 플랫폼	핵심 파트너	다이와코퍼레이션 (일본 전역 풀필먼트 거점)
국내 화주	<p>[수출] 한국 이커머스 업체, 제조업체, OEM 수출상, 소상공인 판매자</p> <p>[수입] 국내 역직구 대행업체, 일본 상품 수입업체</p>		
국내 플랫폼	네이버 쇼핑, 쿠팡, 이베이 한국, 옥션, G마켓, 카페24, 스마트스토어 등 국내 마켓플레이스		
일본 수출 플랫폼	아마존 재팬(Amazon JP), Qoo10 Japan, 라쿠톤(Rakuten), 야후쇼핑(Yahoo!Shop), 메르카리(Mercari) 등		
일본 수입 채널	<p>반품 수집 (B2B/개별 판매자의 반품 물품), 역직구 물량 (일본 현지 소비자의 직접 배송 요청), 일본 현지 판매자 (한국 수입업체와의 거래)</p>		

02. 데이터 기반 양방향 통합 프로세스



End-to-End 업무 흐름 상세

1

오더 발생 & 데이터 수집

[국내] 한국 화주가 쿠팡·네이버·이베이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주문 수집
[해외] 화주가 아마존·재팬·큐텐·라쿠텐 등에 등록한 상품의 주문 발생 시, 콜로세움이 API로 실시간 자동 수집

2

창고 입고 & 운송 요청

화주가 국내 콜로세움 센터에 입고 → 플랫폼이 입고 정보와 주문을 결합하여 부관훼리에 운송 요청

3

해상 운송 & B/L 발행 (이중 프로세스)

[콜로세움 물량] 플랫폼 연동분은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B/L 발행 → 통관·선적 시간 단축
[기존 화주] 팩스/메일로 SR(Shipping Request) 수신 → 기존 B/L 담당자가 수신 처리
→ 추가 자동화로 신규 물량 수용 가능, 기존 업무는 유지

4

일본 내륙 운송 & 거점 입고

시모노세키 항 도착 후 다이와코퍼레이션 거점으로 이동 → 현지 라스트마일 배송 또는 임시 보관·분류

5

수입 & 반품 (역방향 물류)

[반품] 일본 소비자의 반품 물건 및 판매자 반품이 다이와 거점에 집하
[역직구] 일본 현지에서 한국 고객이 요청한 직구 물량 수집 → 콜로세움이 인식 → 부관훼리 선박에 우선 선적 → 양방향 물동 완성 & 수익 극대화

투자 전후 배송 방식 비교

구분	현행 (투자 전)	투자 후 목표
콜로세움의 역할	포워더(자체 또는 기존 포워더와 연동) 화주→콜로세움 창고 입고	포워더 (동일 유지)
운송사 선택	자유 선택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부관훼리/팬스타/카멜리아 등 선사 결정	자동 배정 시스템이 부관훼리 노선을 최우선으로 Lock-in (기술적·지분적 빗장)
부관훼리 입장	콜로세움의 협력 선사 중 하나 물량 보장 없음	한·일 항로의 "Preferred Carrier" 독점적 물량 수주권 보장
경쟁사 진입	콜로세움 물량의 50% 이상이 경쟁사로 분산 가능	콜로세움 플랫폼 접근 차단 (지분 기반 거부권)

💡 핵심 개념: 콜로세움이 포워더 역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배송 수단은 무조건 부관훼리"라는 기술적·지분적 빗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国旗 구간별 운송 주체 및 책임

1구간: 화주 공장/창고 → 콜로세움 물류센터 (입고)

운송 주체	화주 직송 또는 콜로세움의 국내 밀크런(Milk-Run) 트럭 순회 수집
책임	화주 또는 콜로세움 (주로 화주 물류비에 포함)
부관훼리 역할	해당 없음 (콜로세움의 영역)

2구간: 콜로세움 물류센터 → 부산항 (수출 운송) ★ 우리의 기회

운송 주체	콜로세움의 협력 운송사(트럭/컨테이너 전문사)
책임	콜로세움이 포워더처럼 운송사 외부 및 관리
우리의 기회	우리가 주주로 참여하면, 이 구간의 운송사를 부관훼리 협력사(또는 우리측 네트워크) 로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패키지 가격 경쟁력 강화 & 물류비 효율화 → 부산항 집결 물량의 100% 우리 선박에 적재 보장

3구간: 시모노세키 항 → 다이와 창고 (일본 내륙 운송)

운송 주체	다이와코퍼레이션의 자회사 또는 협력 운송사
책임	다이와가 자체 트럭 네트워크 및 JR화물 연계 운영

부관훼리 역할

선박 도착 후 물량 인수 → 다이와 창고로 인수인계 (운영 리스크 없음)

 운송 리스크 제로 구조

운송은 콜로세움과 다이와가 이미 보유한 트럭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당사는 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리스크 없이, 플랫폼이 배정하는 물량만
자사 선박에싣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부산항까지의 운송과 일본 내륙 운송 주체를 콜로세움이 결정하기 때문에,
당사가 주주로서 관여한다면 경쟁 선사가 아닌 오직 당사 향로로만 물량이 모이도록

'운송의 길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03. 부문별 투자 실익 요약

 선사 운영 관점

- 선복 가동률 혁신:** 수출뿐 아니라 일본 현지 집하 물량 및 반품 화물 확보로 선복 효율 극대화
- 업무 최적화:** 콜로세움 연동분에 한정 한 자동화로 현장 부담 없이 신규 물량 수용
- 정기선 우위:** Daily 운항 강점을 살린 저비용·고효율 콜드체인/이커머스 물류 구현

 전략적 투자 관점

- 포워딩 구조 독점화:** 콜로세움이 자체 포워더이든 기존 포워더와 연동하든 관계없이, 시스템 레벨에서 "부관훼리 우선 배정" 로직을 Lock-in하여 모든 물량이 우리 선박으로 자동 집결
- 한-일 항로 독점권 확보:** 콜로세움 물량이 'Preferred Carrier'로 부관훼리를 자동 선택하도록 기술적 빗장 설치 →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의 표준 경로화
- 경쟁사 진입 차단:** 지분 기반 거부권으로 팬스타·카멜리아 등 경쟁사의 콜로세움 플랫폼 접근 원천 차단 → 물량 독점
- 리스크 외주화:** 직접 이커머스 사업 진출의 CS/재고/규제 리스크를 콜로세움이 전담 → 당사는 순수 운송수익만 창출
- 확장성 보증:** 향후 추가 글로벌 플랫폼 파트너십 시 당사 노선 우선 배치 의무화

04. 경영적 판단 및 결언 (Executive Summary)

"콜로세움 투자의 진정한 목표는 '한-일 항로의 표준 운송사' 지위 확보입니다."

핵심 구조 분석:

현재 콜로세움은 '자유 계약 선수'와 같은 포지션입니다.

현재 상황: 콜로세움이 물량을 모으면 → 부관훼리, 팬스타, 카멜리아 중 가장 싼 배를 선택해서 그때그때 배송
(당사 입장에서는 물량 보장이 없음)

투자 후 구조: 콜로세움이 물량을 모으면 →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관훼리 노선을 최우선 배정
(기술적·지분적 빗장을 Lock-in, 경쟁사는 원천 차단)

이는 곧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물량 저장고'에 '**부관훼리 전용 출구**'를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사는 한-일 이커머스 물류의 표준 통로를 선점하게 됩니다."

- **포워딩 구조 독점화:** 콜로세움이 포워더로 활동하든 기존 포워더와 협력하든 상관없이, "**마지막 배송 수단은 무조건 부관훼리**"라는 기술적 빗장을 시스템에 내장합니다.
- **한-일 항로 독점권 확보:** 콜로세움이 아마존·큐텐·라쿠텐과 연동할 때, 부관훼리를 'Preferred Carrier'로 자동 설정 →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의 표준 경로화
- **경쟁사 진입 차단 & 시장 독점:** 지분 기반 거부권으로 팬스타·카멜리아 등이 콜로세움의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일 이커머스 물류의 모든 통로가 부관훼리로 수렴되는 지배적 위치를 구축**합니다.
- **리스크 제로 운송사 모델:** 직구·역직구 시장의 직접 진출은 고정비·CS·규제 리스크가 큽니다. 본 투자는 **모든 운영 리스크를 콜로세움이 전담**하고, 당사는 순수 운송수익과 데이터 주도권만 가져가는 최고효율 구조입니다.

- 선복 가동률 혁신 & 수익성 극대화:** 아마존 반품·역직구 물량의 수입 (Inbound) 확보로 상/하행 양방향 물동을 완성합니다. 빈 배로 돌아온 구간이 고수익 화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 현장 안정 + 조직 성장:** 기존 화주의 팩스/메일 SR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콜로세움 물량만 자동화합니다. **내부 저항 없는 단계적 성장**으로 조직 안정성을 지키면서 급성장합니다.

"이번 SI 투자는 부관훼리를 단순한 해상 운송사에서
'한-일 이커머스 물류의 표준 경로'로 격상시키고,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이커머스 성장을 독점하는 결정적 포석입니다."

05. 투자 타당성 종합지표

4.8

시장 성장성

5.0

수익 시너지

5.0

리스크 방어

5.0

독점 지배력

4.9

최종 투자 가치

부관훼리 재무회계팀 | 2026. 01. 30